

삼성, 글로벌 특허분쟁 이중 압박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두 법정공방

BOE, 삼성디스플레이 상대 소송
퀄컴시 Z폴드·플립, UPC 기술대상

넷리스트, HBM·DDR5 침해 주장
메모리 반도체 분야서 소송 지속

삼성이 글로벌 특허 분쟁의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 특허관리기업(PAE) 넷리스트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와 각각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삼성의 양대 주력 사업이 동시에 특허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다.

9일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BOE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의 갤럭시 Z폴드·플립 시리즈에 적용된 언더패널 카메라(UPC) 기술이 자사 OLED 관련 미국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UPC는 디스플레이 패널 아래에 카메라를 배치해 화면의 일체감을 높이는 기술로, 삼성 폴더블폰의 프리미엄 전략에 핵심이 되는 요소다. BOE가 미국 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삼성의 핵심 기술을 정조준한 전략적 '역공'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022년 12월부터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법원에 O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ITC는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BOE 제품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아



챗GPT로 생성한 '삼성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BOE와 미국 특허관리기업 넷리스트와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이중 압박에 처한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넷리스트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DDR5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수차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특허는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전문 기업으로, 삼성과는 2015년 공동개발 라이선스 계약(JDLA)을 맺었으나 2020년 계약 종료 이후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두 건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23년 8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에 약 4000억원(3억315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2024년 11월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은 "삼성이 넷리스

트 특허를 고의 침해했다"며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원)의 추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즉각 항소해 현재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후 특허심판원(PTAB)에서 넷리스트 특허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실제 배상 규모는 1200만 달러(약 176억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양사 간 특허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HBM 메모리 공급망, 기술 로드맵, 시장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당장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복잡한 기술 소송은 수년이 소요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시장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LG 올레드 TV, '밝은 환경 화질' 인증

TUV '퍼펙트 블랙' 구현 인정
유럽 판매량 4년 만에 2배 성장

LG전자의 올레드(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TV가 업계 최초로 밝은 실내 환경에서도 완벽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LG전자는 9일 자사 2025년형 올레드 TV 전 제품이 글로벌 시험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실내조명 환경 화질 인증' 최고 등급인 '퍼펙트'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낮 시간대 거실 밝기 수준인 500룩스(lux) 조도 환경에서 이뤄졌다.

이번 인증은 밝은 조명으로 인해 화질이 떨어지기 쉬운 ▲검은색 표현 ▲컬러 표현력 ▲명암 대비 ▲계조 정확도 ▲세부 묘사력 등 5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LG전자는 13년간 축적한 O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고품질을 구현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앞서 LG 올레드 TV는 글로벌 인

증기관 UL 솔루션으로부터 '퍼펙트 블랙'과 '퍼펙트 컬러' 인증을, 인터텍으로부터는 '컬러볼륨 100%' 인증을 받았다. 각각 색 왜곡 없이 원본 그대로를 재현하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LG 올레드 에보 모델은 TUV 라인란드로부터 '빠른 고화질 이미지 표현 안정성' 인증까지 받았다. TV 전원을 켜 직후에도 빠르게 안정적으로 고화질을 구현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기술력뿐 아니라 판매 성과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유럽 누적 판매량도 최근 1000만대를 돌파했다. 2013년 첫 출시 이후 2021년 500만대를 넘긴 데 이어, 불과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혜민 기자

기아, 첫 PBV 'PV5' 사전계약 시작

패신저·카고 등 맞춤형 라인업

기아가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더 기아 PV5'(PV5)를 공식 출시하고 10일부터 국내 사전계약에 돌입한다. PV5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하드웨어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통합된 신개념의 중형 PBV이다.

PV5는 ▲다양한 시트 배열의 '패신저' ▲제원 및 적재 용량이 각기 다른 3종의 '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차량 ▲사시캡 등 기본 모델과 다양한 컨버전 모델 라인업을 갖췄다. 기아는 이 중 ▲패신저(5인승, 2-3-0) 모델과 ▲

카고(통) 모델을 먼저 선보인다.

PV5 패신저는 2995mm 축간거리를 바탕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1330L다. 2열 시트 미사용 시 최대 2310L까지 커진다. 최고 출력 120kW, 최대 토크 250Nm의 전기 모터와 71.2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단일 모델로 운영된다.

PV5 카고는 적재 용량에 따라 ▲컴팩트 ▲롱 ▲하이루프 등으로 운영된다. 차량 전장 4695mm의 롱 모델 기준, 최대 4420L까지 적재할 수 있다. 적재고를 419mm 수준으로 낮추고, 열림 각도를 95도와 180도 두 가지로 조정 가능한 양면형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유럽 전자레인지 시장 10년째 1위

세라믹 코팅·스마트 기능 등 차별화
비스포크 디자인, 친환경 경쟁력 더해

삼성전자가 유럽 전자레인지 시장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위생과 디자인, 연결성까지 고루 갖춘 전략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통했다는 평가다.

9일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19개국 전자레인지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점유율 12.8%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세라믹 내부 코팅, 맞춤형 디자인, 스마트 기능 등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이뤘다.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항균 기능이 적용된 세라믹 코팅을 사용했다. 독일 항균 인증기관인 호헨스타인으로부터 99.9% 항균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시험 결과 포도상구균 99.93%, 폐렴간균 99.99%의 항균 효



10년 연속 유럽 전자레인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과가 확인됐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유럽 소비자 취향을 반영했다.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해 7가지 색상과 유리 소재를 활용한 '비스포크 전자레인지'를 출시해 개성 있는 주방 연출을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에

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선보였다. 음성으로 조리 모드를 제어하거나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식재료 관리와 레시피 제공 기능을 갖춘 '삼성 푸드'와 연동해 요리 편의성도 높였다. 이 제품은 삼성의 통합가전 플랫폼 '스마트싱스'와도 연동된다.

친환경 경쟁력도 더해졌다. 삼성전자는 포스코와 협력해 재활용 소재 비율을 높인 전자레인지·오븐용 강판을 개발했다. 이 강판은 지난해 9월 UL 솔루션으로부터 '환경성 주장 검증(ECV)'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황태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유럽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AI 기반의 주방가전 생태계를 통해 스마트한 생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정숙·여유로운 공간, 품격 있게 달린다

YG의 CAR TALK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효율성·안정성으로 주행 감각 완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량은 팰리세이드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연료효율성을 앞세워 말 그대로 대박났다. 당장 계약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할 정도로 물량이 밀려있는 상태다. '아빠의 SUV'로 인기를 이어온 쏘렌토의 판매량도 넘어섰다.

최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2.5L 터보 하이브리드)을 경험하면서 한층 완벽해진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승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가평군 청평호 인근을 경유해 돌아오는 약 15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첫 인상은 5m가 넘는 체구와 이전

세대와 달리 각진 디자인을 적용해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내 공간도 여유롭다. 7인승 모델로 1열부터 3열까지 성인 남성(177cm)이 탑승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처음 탑재된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 최고출력 262마력,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 334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2톤이 넘는 무게에도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속도를 높여도 빠르게 반응했다. 또 1세대 팰리세이드에서 논란이 됐던 롤링 현상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연비다. 고속도로와 도심, 국도 등을 주행한 결과 연비는 공인연비(14.1km/L)를 훌쩍 넘어서는 15.3km/L를 기록했다. 대형 SUV인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연비 성능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